

건기법시행령개정안 공청회

「건축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문제」쟁점

규제완화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부분적 개정안 실효에 의문



공청회 광경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건설서관 중회의실에서 업계와 학계 등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예상대로 감리제도에 대한 각 업계의 높은 관심을 말해주듯 방청객들이 150석 규모의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돼 시종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우리협회 이관영 이사는 「이번 시행령중 개정안이 감리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순위와 경중이 전도되어 있다」며 「분쟁조정기구 및 연구기구 등의 설치를 통해 현행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방

치한 채, 규제완화라는 정책에 꿰맞추기 위한 부분적 개정안은 실효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필연성이 없으며 본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강한 어조로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관영 이사를 비롯해 황위성 건설감리협회 부회장, 오진웅 건설협회 기술이사,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만 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 권오석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명예회장, 송광훈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기법시행령개정안 중 제54조에는 현행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를 대표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돼 있어 건축감리회사의 대표자를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건축감리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역행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다음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조 문	현 행	개 정 내 용	비 고
제7조의 2	〈신설〉	②감리전문회사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설계등의 표준화)	〈신설〉		
제39조의 3(건설표준 확추진위원회)	〈신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50억원이상 1만㎡ 이상 건축물	50억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종의 <u>건설공사 및 건축공사</u>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본문생략 ②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①본문현행과 같음 -(별표5) 개정 ②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를 삭제함	①(별표5)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 ②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이면 대표자가 가능토록 됨
제54조의 3 (감리원의 겸직금지 허용범위)	〈신설〉	비상주 감리원이 당해공사 감리대상이 아닌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	①-③	〈본 협회에 경력관리를 위탁한다는 내용 없음〉

교통영향평가제도 학술토론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착오에 대한 검증 이루어져야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5월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대 이용재 교수의 이 제도의 공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가한 박서홍 회원(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시행착오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아울러 새로운 체제로의 재구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심의만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며, 현행제도를 개선할 경우는 건축심의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3단체 원로 모임

원로 30여인사 건축계 현안 논의

건축 3단체의 역대 회장을 비롯한 건축계 원로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계 발전을 위한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의 원로 인사 30여명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성북동 대원각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의 건축계 현안 등



건축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송기덕, 윤승중, 김규태, 오운동, 이영희, 함성권씨 등을 비롯해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 강석원 건축가협회 회장, 이정덕 건축학회 회장 등 건축3단체의 전·현직회장 30여 인사가 참석하였다.

규제개혁위, 건축설계 등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완화」 논란

건축계 반대여론 확산

- 창작성과 전문성 무시된 제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사 등 전문서비스분야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건축계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전문자격서비스분야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심의할 공정위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각분야 규제완화대책 내용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검토중인 건축사 등 전문서비스분야 진입제한 완화를 비롯해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도시설계조정심의 등 각종 건축관련심의제도 간소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건축관련분야 과제들을 오는 5~6월중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어서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건축설계분야 진입제한 규제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축사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분야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부문의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검토중인 내용으로 그동안 건축계는 건축설계의 창작성과 전문성·독창성 등의 특성이 무시된 제안이기 때문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정부가 진입제한완화를 검토중인 전문자격서비스분야에는 건축사외에도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17개 직종이 해당된다.

서울시, 건축사 행정처분 강화 방침

위반건축사 업무정지 등 기준 세분화

서울시는 고질적인 건축분야의 민원 해소와 함께 불합리한 건축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건축관련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과 일부 건축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중 송파와 종로구를 시범구로 정해 건축분야 「생활부조리 척결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시는 이후 효과가 좋을 경우 이를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신고제도와 위반건축물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제도 개선 등 3개부분으로 나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청 주전산기에 인·허가 관련부서의 전산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축허가 건물 중 30%이상을 표본추출해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건축허가·신고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건축위원회를 거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키로 했다. 또한 위반건축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는 해당구청에서 처리토록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으며 건축사업무정지 등 기준을 세분화하고 위반사항이 겹칠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제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10개부문 221명 참가 기량겨뤄

건설기능인의 기술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18일 서울 공덕동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거푸집, 미장, 건축목공, 조적 등 10개부문에 걸쳐 2백 21명의 기능인이 참가해 그동안 각자 갖고 닦아온 기량을 겨뤘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원석)는 이달 2일에 열린 협회 창립기념식에서 이번 대회의 각부문 1~3위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 그리고 해당부문 기능사2급 자격증을 수여했다.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발표

건교부, 소형주택건설 의무지역 축소

건설교통부는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과 경기

도의 14개 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소형주택 건설의무제를 폐지했으며(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광주·대구·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림건축, ISO-9001 인증 취득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처음

(주)희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가 국내 건축설계업체로는 처음으로 품질인증규격인 ISO-9001을 취득했다. 희림건축은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와 ISO-9001 인증에 대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뒤 7개월동안의 인증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8일에 인증취득을 마쳤다. 건축사사무소에서의 ISO-9001은 설계도서 작성업무에 품질시스템을 적용, 각 설계진행단계(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마다 작성-검토-승인과정을 명확하게 해 최종설계도의 완성도와 정밀도를 한층 높일 수가 있다. 최근 국제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ISO인증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등 시장개방에 맞춰 많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가 생존경쟁을 위해 품질우선주의를 명제로 일대 변신을 꾀하고 있어 이번 희림건축의 경우처럼 품질보증시스템 도입으로 품질경영(QM)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주택규모 건설비율

지 역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75%	30%
경기도중 다음의 시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60%	20%
기타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

5월 주제 'Design Relationship'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원서동 공간 신사옥에서 열린다. 5월 월례회는 'Design Relationship'을 주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건축물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을 선정해 설계자와 지정보론자가 집중 분석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그리고 도시의 문맥 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특강과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이번 발표회에는 최기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서울의 룩과 곡'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주제발표자로는 서해천(공간사 설계본부장), 배병길(배병길 건축연구소 대표)씨가, 토론자로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조건영(기산건축 대표)씨가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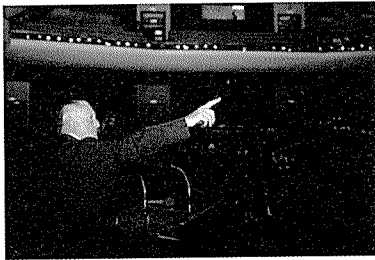
문의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0331-290-5778)

「미래의 도시」, 건축디자인 전시회

한·영만남 200주년기념행사 일환

미래도시의 새로운 건설과 다양한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의 도시" 건축디자인 전시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앙일보사 로비에서 열린 한·영만남 200주년의 의미를 새롭게 하였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와 영국통상성이 공동주최한 이 전시행사에는 영국 디자이너들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생활양식, 작업환경 및 교통환경 등의 주제별 설계도면과 건축작

품 등 전시물 40여점이 선보였으며 서울 신공항과 부산 철도역사 및 터미널 설계 등 국내시설의 설계디자인도 함께 전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일인 18일에 열린 세미나에는 리처드 로저스를 비롯해 테리 파렐 등 영국의 대표적 건축거장들과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리처드 로저스 강연광경

광주대 건축강연회

‘건축가의 이상과 현실’ 주제

광주대 건축공학과에서는 ‘건축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97년도 1학기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6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강사 및 강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사/일시/장소 순)

- 전인호(Atelier d'espase 대표) / 4. 16(수) 15:00 ~ 17:30 / 공대 합동 강의실
- 김준성(Studio 대표) / 5. 1(목) 15:00 ~ 17:30 / 공대합동강의실
- 최 옥(건축사사무소 K&C 대표) / 5. 12(월) 15:00 ~ 17:30 / 공대합동 강의실
- 민선주(위가건축 대표) / 5. 27(화) 15:00 ~ 17:30 / 행정관 5층 대회의실
- 김종규(M.A.R.U건축사사무소 대표) / 6. 13(금) 15:00 ~ 17:30 / 공대 합동회의실

제8회 세계건축트리엔날레

올해 6월말 불가리아에서 개최

제8회 세계건축트리엔날레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다. 8회 행사는「새로운 건축가상의 정립을 위한 21세기 건축교육」을 주제로 건축가들의 현대건축물 소개와 함께 각 건축학교에서 선정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각종 건축출판물들도 판매된다. 전시주제는 「이베로 아메리카 지역의 건축구조와 디자인」, 「세계 현대건축을 이끄는 주인공들」, 「생태학과 도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거주지」, 「벨기에 개인 목조주택」이다. 3년마다 열리는 트리엔날레에는 또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현상설계도 함께 실시되는데 이번 현상설계 주제는 ▶미래의 건축구조 ▶전통건축의 개혁 ▶건축의 동질성 ▶건축과 생태학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다.

국내 CAD관련社, 해외시장 개척 활발

(주)건캐드, '97 A/E/C Show참가해 자사개발 프로그램 홍보

국내 CAD관련업체들이 국내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주도해 온 (주)건캐드의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16일부터 3일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리는 CAD/CAM/CAE분야의 세계적인 행사인 '97 A/E/C Show에 참가해 자사개발 프로그램인 CAD-POWER와 C.G용 ArcPant 및 Multi-Media Authorizing Tool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국내 CAD관련업체의 해외시

장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이미 국내 건축·건설업계에도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 온 CAD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기능에서 벗어나 관련분야인 지리정보시스템(GIS), 시설물관리(FM), 기술관련 문서관리(TDM) 기능 등을 종합한 통합 문서관리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어 이룰두고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신제품개발과 자사제품 홍보에 전력중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이번 (주)건캐드의 경우는 국내 CAD업체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축가협회 공개강좌

「북한의 문화유산 보존과 려말선초 목조건축」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 건축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3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출판협회회관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보존과 려말선초 목조건축」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목원대 건축과 이왕기 교수가 '북한의 민족 문화유산 보호사업 진행과정', '역사적인 종교건축물', '현존하는 문화유산중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축물' 등에 대해 강연을 한다. 공개강좌 장소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경복궁(구 국립중앙박물관) 동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3275) .

제11·12회 건축가 포럼

주제는 「도시건축의 풍경」, 「환경에서의 조형」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 포럼」이 오는 5

월21일(11회)과 6월25일(12회)에 각각 개최된다. 제11회 포럼의 주제는 '도시건축의 풍경'으로 오는 5월 21일 오후 3시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4층에서 열리며 조성룡(도시건축 대표)씨와 김봉렬(국립종합예술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또 제12회 포럼은 '환경에서의 조형'을 주제로 동일장소에서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홍익대 건축학과 강건희 교수와 이범재 단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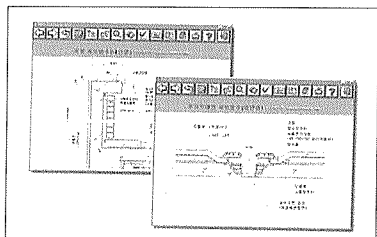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3275)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 CD롬 출시

(주)청우미디어, CD롬 타이틀 개발

CAD 전문업체인 (주)청우미디어는 건축방수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한 「건축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CD롬 타이틀을 개발해 출시하였다.

CD에 담긴 주요내용은 방수와 관련된 지식, 방수시스템의 설계, 각종 방수재료, 방수재료별 시공방법, 방수재료의 성능평가 및 시험방법, 관련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 방수에 관한 텍스트 자료와 더불어 700여장의 표, 그림,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방수공법의 시공장면 등이 40여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80여장의 방수디테일 도면이 Auto CAD Drawing파일로 제공되어 실제 설계에 응용할 수 있다.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



분양 전문기술 CD롬 타이틀로서 건설회사, 감리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실무, 교육, 연구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문의 : (주)청우미디어 (02)3473-8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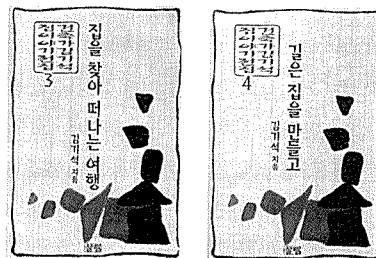
건축신간 안내

「건축가 김기석의...」 전집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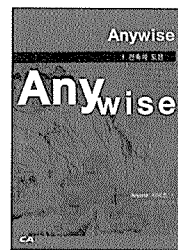
◇ 건축가 김기석의 집이야기 3, 4권

이 집이야기 전집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중견 건축가 김기석씨(아람광장 대표)의 전문적 시각과 주장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 교양실용서로서, 꿈에서 시작해 그 꿈이 현실로 살아나기까지 양극간의 피드백 과정을 충실하게 담은 27년간의 작업노트가 체계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월에 처음 발간된 집이야기 전집 1권에서는 단순한 기계적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집을 지향하는 건축가로서의 소신을 편안하게 풀어 놓았고, 그 후 발간된 2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준비작업, 곧 설계 입문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진전해 이번엔 새로 발간된 3, 4권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설계, 시공한 개별주택(따로집)과 집합주택(모듬집)들을 꼼꼼히 답사하면서 작가 자신의 건축관이 실제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살림출판사 펴냄 / 신국판 /3권 268쪽, 4권 304쪽 / 각권 8천원 / 문의 :396-4293



◇ 애니와이즈 건축의 도전



이 책은 지난 95년 서울에서 열린 애니와이즈 컨퍼런스(Anywise Conference)의 내용을 뉴욕의 애니원(Anyone)사와 건축

도서출판공사가 공동으로 편집해서 발행한 것이다. 애니원 컨퍼런스는 세계의 유명건축가들과 각 분야의 선두에 서있는 사상가들이 모여,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의 건축과 도시상황에 관해 토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적 모임이다. 이 책에는 「현대 도시에 있어서 건축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렸던 95년 서울 애니와이즈 컨퍼런스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시와 건축의 계획 및 미학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현대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도서출판공사 펴냄 / 데이비스 하비·김석철, 램 쿨하라스 외 7인 펴냄 / 2만2천원 / 문의 : 02-547-6156~7

◇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

이 책은 선진 제국들의 도시모습이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속에 예술문화를 부여하고 도시의 질을 높여려한 현장들을 실감나게 보여줘 현재 우리의 도시가

국적불명으로 건설되고 있는 양태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책은 북유럽, 베네룩스 3국, 동서부 유럽, 남부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권역을 나눠 각국의 도시모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써 놓아 외국 답사여행을 통한 직접 체험을 원하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답사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월간빌딩문화 펴냄 / 현영조 펴냄 / 국배판 / 4만원 / 문의 : 02-789-6411~7